

보조국사 주장자 소리 아직도 골짜기 찌렁찌렁 울리네!



41 부처의 해가 뜨는 도량 송광사(하)

송광사의 하늘에는 지늘의 시대로부터 부처의 해 [佛日]가 떴습니다. 추상같은 정혜결사의 기치 아래 모여든 운수남자들의 기상이 해처럼 밝고 달처럼 맑았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조계산의 기운에 피폐한 시대의 찌꺼기 같은 먹장구름이 흩어지고 순일무잡의 활공(滑空)이 열렸으니 부처의 해는 넓고 넓게 그 찬란한 빛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지옥이 극락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조계산에 부처의 해가 아무리 높이 떠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부처의 해가 뜨고 지기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세속은 세속의 이름을 버리지 못하여 왕조가 바뀌고 전란이 이어지고 문물과 풍속이 변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생계입니다.

송광사 부도밭에서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불일암 가는 길로 접어들었을 때 빗방울이 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늑한 산길, 조용한 발걸음으로 이 길을 무수히 오고갔을 법정(法頂) 스님을 생각합니다.

지난 봄 스님의 입적은 근래 보기 드문 쾌활한 사자후였습니다. 이 시대 누구보다 존경받는 스승이었던 장의(葬儀)와 다비(荼毘)의 번거로움을 생략시켰고 많은 글로 중생들의 마음을 씻어주었지만 원적에 앞서 평생 쓴 글들이 '말뭉치'가 될까 염려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법을 설한다는 것은 설할 법이 없으므로 법을 설한다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수상록 범문집 기행서 번역서 등 40여 권의 책을 펴냈지만, 그 모든 말씨들이 중생계에 빛으로 남을까봐 더 이상 책을 출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책들이야말로 스님의 '담비' 일진대, 후대를 향한 '흔적 지우기'가 다소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진정한 무소유는 무소유조차 소유하지 않는 것임을 가르치려 했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굽어 젖은 빗방울이 장난처럼 다시 가늘어지고 산 굽이를 돌고 돌아 감로암 앞에 이르렀을 때, '와!~' 하는 감탄사와 함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감로암 앞 평평한 봉우리에 낙랑장승처럼 홀로 서 있는 비하나가 초록의 산들을 굽어보고 있는 풍경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원감국사(圓鑑國師 1226~1292)의 비입니다. 지늘 이후 수선사의 6대 법주인 원감국사는 선교일치의 사상을 드높였으며 뛰어난 문장으로도 이름이 높습니다. <원감국사집>이나 <동문선>에 전하는 국사의 글들이 깨달은 이의 활달자재한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 장흥에는 장원봉이라는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의 형제들이 연이어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전합니다. 세간의 명문가에서 공부하고 출세간의 명문도량 수선사에서



감로암 앞에 웅장하게 서 있는 원감국사 담비.

뒤았으니 그 도의 높고 아름다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종장(宗匠)이다 보니 임종계 또한 읽는 사람의 가슴을 환하게 합니다.

돌아보니 세상살이 67년인데, 오늘 아침 모든 일을 마쳤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탄연하여 평탄하고 노두가 분명하니 어찌 길을 잃랴. 손에는 겨우 하나의 대지팡이뿐이지만 가는 길에 다리가 피로하지 않을 것이 또한 기뻐라.

어쩌면 이 임종계의 분위기에서 법정 스님의 원적이 읽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송광사의 모든 유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유형과 무형을 떠나 조계산의 역사에 인연 지어진 모든 일들이 지늘 이후의 여러 국사와 이름을 남기지 않은 수행자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과 교를 돌로 여기지 않았으니 우주법계에 제한되지 않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감국사에게서 법정 스님이 느껴지고 법정 스님에게서 보 조국사가 읽혀지는 것이 당연하고 율원의 학승에게서 16국사의 풍모가 보이고 장중한 가람에서 선원과 강원의 학인들 체취가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송광사 스님이 곧 송광사입니다. 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보 조국사가 광광 친 주장자 소리가 아직도 조계산 골짜기에 가득한 것입니다.

다시 빗방울이 굽어지고 천둥 번개가 요란한 산길을 헤치고 드디어 불일암에 당도합니다. 암자에 이

르는 대숲길이 극락으로 통하는 문인 것 같습니다. 고요합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천둥소리까지 합세를 하지만 불일암은 고요합니다. 뒷밭의 고추와 가지 토마토가 고요하고 후박나무 넓은 잎들이 후두독후두독 비를 맞으면서도 고요를 깨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이 손수 만든 나무 의자 하나가 놓여 있는 추녀 아래 사랑 바구니와 책 한권 그리고 불편이 놓여 있습니다. 옆에는 양은 세숫대야 두 개가 놓여 있고 양증맞은 야생초들이 낮은 기왓장에 뿌리를 내리고 생글거리고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제 자리에서 제 이름을 지키고 있는 풍경, 그 속에 법정 스님만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법정 스님도 그 풍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눈 어두운 순례자에게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유해가 뿌려진 불일암 꽃밭의 후박나무 아래는 무형의 부도탑일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음으로 하여 무수한 것을 보고 아무 것도 들리지 않음으로 하여 무수한 법음을 들을 수 있는 설법전인 것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불일암에서 절대적인 무소유를 실천하려 했던 한 수행자의 초상을 그려 보다가 다시 대나무 숲길을 나오자니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거기 의자에 앉아 비스듬히 책을 읽던 법정 스님이 "차나 한 잔 하고 가지" 하며 조용한 목소리를 날려 보낼 것만 같아서 말입니다. 한 사람이 걸기에 딱 알맞은 넓이의 산길을 따라 내려온 곳에 탑전(塔殿)이 있습니다. 구산(九山 1909~1983) 스님의 부도와 일각(一覺 1924~1996) 스님의 부도가 모셔져 있고 그 뒤편에도 10여 개의 부도가 서 있는 그윽한 곳입니다. 근현대를 살다 간

송광사 고덕들의 부도가 새로운 부도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탑전에 이르는 문이 아주 독특합니다. 탑전 구역의 안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높다란 누각을 통해야 하는데 누각에는 '구산선문(九山禪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송광사는 선종의 역사를 시작한 구산선문에 속하지 않는 도량입니다. 다만 구산당 수련대종사(秀蓮大宗師)의 부도와 탑비가 모셔진 탑비에 이르는 문임을 그렇게 우렁차게 암시하는 겁니다. 좀 더 마음을 낮추고 좀 더 지혜를 열고 들어오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현판의 글귀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각 아래에 두 사람이 팔을 벌려야 안을 정도로 굵은 통나무를 세우고 그 속을 파서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틈을

받았습니다.

제방 선원에서 운수의 행을 착실히 밟았고 효봉 스님의 법을 이어 경향각지에서 정진과 전법에 게으르지 않았으며, 정화불사 동참, 중앙종회의원, 대구 동화사 주지 등 종단 소임도 맡아 직분을 어기지 않았었습니다. 1969년 송광사 조계총림이 개설되어 방장에 추대되었고 곧바로 불일회(佛日會)를 창립하여 보조국사 이후 면면히 이어 온 정혜결사의 정신을 현창하는 기틀을 놓았습니다.

구산 스님의 부도와 탑비 아래에 꽃꽂은 인상으로서 있는 부도는 '전불심등구제조명개인안목총림방장회광당일각대종사지비'입니다. 송광사 방장을 지낸 일각 스님의 비문도 일각스님이 지었습니다. 비문에는 현대에 맞는 포교방법을 개발하면서 전법에 매진했던 일각 스님의 생애가 가슴 뭉클하게 기록되

법정 스님 유해 뿌려진 불일암 화단 '이름 없는 부도밭'

과거 수행자와 오늘의 수행자 둘 아니게 존재하는 도량

통해 구산의 선문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섬뜩할 만치 성성한 선기가 느껴지는 장치입니다. 그것이 구산 스님의 가풍이고 멀리 지늘 스님의 가풍인 것입니다.

탑전에 이르러면 왼쪽으로 적공전이 보이고 정면으로는 구산 스님의 부도와 탑비 그리고 일각 스님의 부도와 탑비가 보입니다. 그 뒤 언덕에 키가 낮은 석종들이 줄을 지어 앉아 있습니다.

구산 스님의 부도는 아(阿) 자 형의 화강암 지대석이 높디랴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 위로 없어진 하대석과 중대석 역시 같은 모양을 따라 탑의 높이를 받쳐주고 있으며 상대석은 팔각의 하부와 꽃받침의 상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중대석의 네 귀에는 사자가 포호하고 있고 난간을 두른 상대석 위에 둥그런 탑신이 올려 졌는데 탑신의 아랫부분은 연꽃잎이 수놓아졌습니다. 옥개석과 상륜부의 조각도 매우 우아하고 치밀하여 전체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장중한 탑의 형상이 높은 고승의 덕화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옆에 서 있는 탑비는 '전불심등부종수교조계사조총림방장구산당수련대종사적광탑'이란 긴 이름을 전면에 새기고 생애와 사상을 옆면과 뒷면에 새겼습니다. 비문은 일타(日陀) 스님이 찬했고 앞면의 글씨는 일중 김충현 선생의 솜씨, 비문은 초정 권창윤 선생의 글씨입니다.

구산 스님은 전란으로 피폐한 송광사를 오늘의 대도량으로 일군 주역입니다. 구산은 당호이고 법명은 수련이며 석사자(石獅子)라는 별호로도 유명합니다. 전북 남원에서 출생하여 27세에 지리산 영원사에서 100일 동안 천수 기도를 하고 병을 낫아 출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것을 속세의 인연이라고 하겠지요. 이듬해 효봉 스님을 은사로 송광사 삼일암에서 사미계를 받고 통도사에서 해답 스님에게 비구계를

어 있습니다.

흔히 송광사에 가면 대웅보전과 경내의 전각들만 보고 오기 일쑤입니다. 송광사야말로 한나절 둘러보는 절이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살살이 둘러 봐야 할 절입니다. 거기 암자마다 모시고 있는 옛 스님들의 부도는 물론이고 크고 작은 부도밭이 골골파 다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는설위원)



구산선문에 들어가는 통나무 문.

기적의 목 · 어깨 전문 지압기 보급에
함께하실 전국 지역 총판 대표님을 모십니다

세계유일의 가정용
경추지압장치입니다.

사용 즉시 효과 100%

- 40,50건으로 어깨가 자주 결리고 아프신 분
- 목디스크 환자
- 운전 등으로 목이 자주 피로하신 분
- 수면자세가 불량하여 목이 불편하신 분
- 두통, 치통, 코막힘 등 얼굴과 머리부위 이상
- 테니스, 골프 엘보
- 약기 연주시 손가락 저림 현상을 느끼시는 분
- 목에 통증과 피로를 자주 느끼시는 분

The People for the human being
KUNHEUNGTECH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12 서도빌딩 5층
www.kun-heung.co.kr

지역 총판 특전

1. 무자본으로 40억
2. 소자본 무점포 사업
3. 마케팅 Tool 지원
 - e-마케팅지원 (검색광고지원)
 - 팸플릿 / 리플렛 / 포스터지원
 - 판매매뉴얼제작 / 배포 → 방판사원 교육지원



- 특허등록출원 제2010-34096호
- 상표등록출원 제2010-39768호
- 디자인등록출원 제2010-0035647호
- FDA등록출원

전화 주시거나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하여 드립니다.

상담 및 주문전화

02)2058-1482~3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희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